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272 호 현대불교
2019년 12월 11일(11월 15일) 수요일 / 불기 2563년

근본에다 맡기고 관하는 것이 그대로 내가 죽는 방법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조복받으려면

질문 : 우리는 내 몸과 마음을 가지고도 왜 내 맘대로 안 될까요? 내가 나를 자유롭게 굴리고 싶은데 잘 안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몸과 마음을 조복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그래서 얘긴데 이 모든 것을 만약에 '길을 지나가다가도 천도재를 한다.' 이 뜻은 뭐냐? 천도를 한다는 겁니다. 소나 말이나 돼지나 어떠한 사람이나 가다가 보면 그 속을, 남의 속을 다 아니깐…. 남의 속을 다 아는 것, 타심통이 도가 아니다 이런 것이 뭐냐 하면 타심통을 안다면 즉시 실천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도'입니다. 실천 없는 거는 도가 아닙니다. 오신통은 그릇을 만드는 거고 또 우리가 실천은 그 그릇대로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육으로다가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는 거보다도 이 정신계의 참자기, 자기란 수억겁을 거쳐 온 아주 보배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그 억겁을 거쳐 온 그 주인공이, 즉 말하자면 주장자가 주인이고 나는 그냥, 몸은 시자인 것입니다. 시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반가워서 악수를 할 때에 마음이 가니깐 손이 덩달아 따라간 거지, 마음이 안 가는데 손이 악수를 하려고 덩달아 따라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마음이 움죽거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움죽거리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매여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매인 몸은 공했다. 매인 몸이기 때문에 공했다. 찰나찰나 물을 마셔도 내가 마셨단 말을 못 한다. 왜? 이 지구와 같은 이 몸속에도, 이 한 개체도 생명체들이 얽히고설키고 많이 있음으로서 어떤 것이 먹는다고 할 수 없으니깐 "내가 먹은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냉정히 따지고 보면 그 중생들이 달래서 나는 심부름만 한 거지, 아래로는 중생들의 심부름, 위로는 그 부처님의 시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아래의 중생들을 모두 흡수해야 된다." 이러는 거는 조복을 해야 된다. 한마음으로 조복이 돼야 내가 마음먹는 대로 한마음으로 따라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의식들이 다 보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자기 마음을 그대로 천차만별로 보살행을 하게끔 자유권을 줬습니다. 자유권을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자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권이 있게끔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휴! 내가 이거 뭐, 중생인데 이렇게 허공에 발을 떼어 놓을 수가 있겠나?' 이러지만 우리는 그냥 거기다가 맡기고 관하고 이러는 게 그대로 내가 죽는 방법이요, 내가 함이 없이 하는 방법이요, 둘 아닌 도리를 아는 방법이요, 구경계에 이르는 방법이요, 전부가 아니 되는 게, 아니 하는 게 없는 방법입니다.



그림 · 최주현

예를 들어 여러분 친척이 만약에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서 급하게 기별이 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떡해야 되겠습니까? 그쪽의 마음도 이쪽의 마음도 둘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길다 짧다, 악이다 선이다 이거를 전제하고 무조건이었습니다. 무조건이십니다. 우리도 무조건입니다. 이유를 붙이지 않아야 됩니다. '너는 고렇게 얄밉게 했으니깐 넌 그렇게 해도 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부처님의 그림자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직껏 수차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고 실천을 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어떠한 거를 거기 집어넣고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인공에다가 그냥 '둘 아닌데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자기 주인공에 관하면 그 주인공으로 그냥 나투게 됩니다. 나투게 돼서 그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급하니깐 그랬지만 가까운 데서 그럴 때는 데리고 와서 관하는 것도 알려 주고 이러면서 가르쳐 줘야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가까운 데 사람은 조금 공부를 가르치는 편이고 또 가깝지 않고 멀리 있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줘야 합니다. 아셨죠?

그게 바로 무심 도리요, 바로 공용의 도리요, 공체의 도리요, 공식의 도립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뭐든지 내줄 수 있는 여건이라면 다 내준다 이런 거 말입니다. 내도 내도 줄지 않고 또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수만 이 허공을 다 집어넣는대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건 체가 없는 까닭입니다. 체가 없는 데다가 체가 없는 걸 넣으니 이 천차만별의 생명들을 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는 법이 있겠습니까, 어디? 없죠. 그러니깐 인간에게는 다 자유권을 줬는데, 마음을 자유권으로 쓰라고 줬는데 자유스럽게 쓰질 못해요. 이게 작다 크다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속으로는 이게 적다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만약에 급한 일에는 판단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예전에 6 · 25 때 모래톱에서요, 총이 막 날아오니깐 총알을 다리에 맞아서 다리가 그냥 이렇게 저거 했는데도,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막 그냥 뛰는 거 있죠. 마음이란 그렇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마음이 느긋하면 좀 천천히 걸어가게 돼 있고, 또 아프다고 그냥 꾀를 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아파도 그냥 '일어나야지. 할 건 해야지.' 하고 마음이 그렇게 돌아갈 때 바로 일어서집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다 뭐하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차차분해선 그냥 깔아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면 '난 이제 죽는다.' 이런 거 있죠, 왜. 그런 거 많지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죽으니까 이 몸속에 있는 생명들도 다 죽는 거예요. '인젠 죽었다.' 하는 거요. 이 몸속에서 작용을 해 줘야 할 생명들이 '나는 죽었다.' 하니 그게 살 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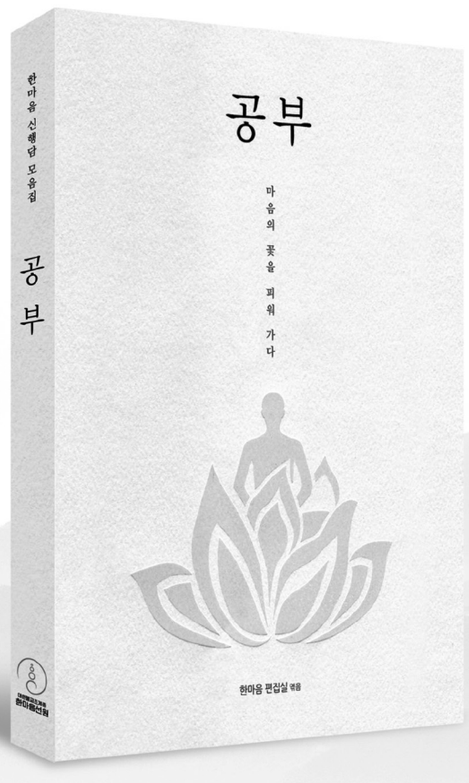
생각을 해 보세요. 위 공장의 책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관리인 또는 간장 관리인, 소장 관리인, 대장 관리인, 콩팥 관리인, 방광 관리인, 척수 · 척추 관리인, 그 모두 이 두뇌는 모두의 관리인들이 다 폭삭 그냥 죽는 거예요. 마음이 말입니다. 의욕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이, 이건 첫째 선두자가, 앞에 선 선두자가 마음이 '야, 이건 다 죽겠구나. 인젠 죽었다.' 이러면 그 밑으로 쭐쭐 내려가면서 다 죽겠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고 죽이는 거는 그 주장자에 매여 있으니 그렇게 남이 이러는 대로 쓸리지 말고 저러는 대로 쓸리지 말고 내 주장을 세워라 이겁니다. "악하고 선한 거를 다 놔야 된다." 이런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 거기에 한데 합해서 돌아가죠.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면서 정히 급하고 그럴 때도, 이 국난에 이렇게 처해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런 걸 알고 '회사가 어떠한 지경에 놓여 있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할 때에 벌써 미리미리 이걸 처리를 해야 되겠죠. 다 인제는 꺾어지고 다 저거 한 연에 이걸 일으켜 세우려니까 힘들죠. 모두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부부지간에 싸우고 헤어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싸우는 거거든요. 내가 없다면 뭐가 싸울 게 있습니까? 부부지간에 만난다 하더라도, 자식의 인연을 짓는다 하는 것도 다 끼리끼리 만나는 인연입니다. 금은 금대로 모이고 인연이 되고, 무쇠는 무쇠대로 인연이 되고, 시장에 가면 사과는 사과대로 인연이 되고, 배는 배대로 인연이 되고 이렇게 인연이 된 사람들끼리 한 가정이 됐다면 그 가정에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니 모두 각자 내 탓으로 돌리고, 둘 아니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부드러운 말 해 줄 수 있고, 부드러운 행동 해 줄 수 있다면 그 집은 아주 화합이 되고 부유하게 늘어 가고 안 되는 일이 없이 그렇게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지, 왜 만날 그렇게, 그렇게 좁게 그냥 자기 마음을…. 꿈을 꾸구도요, 허, 그것도 맘대로 못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